

진흥회 활동

'95 신개발 및 국산화대상 전자부품 전시회 개최



본회 전자부품산업협의회(회장 엄길용)는 신개발 전자부품의 판로개척과 수입부품의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한 '95신개발 및 국산화 대상 전자부품전시회를 통상산업부 후원 아래 9월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본회 대회의실에서 본회 이상원 부회장, 통상산업부 서사현 국장, 엄길용 전자부품산업협회회장, 대한전자공학회 이문기 회장, 기린전자 이기방 사장 등 많은 관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9월 22일까지 3일간 개최된 동전시회에서는 지난 1년 동안 국내에서 개발된 326개의 전자부품과 수입이 급증하고 있어 개발이 시급한 218개의 국산화 대상품목 및 표준화된 전자부품 80

개 품목 등 모두 624개의 전자부품 및 재료가 전시됐다.

따라서 전자부품업계는 금년에 약 614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해 326개의 전자부품 및 소재를 개발 전시함으로써 내년에는 10억 8,700만불의 수입대체(대일 수입대체가 90%)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년 새로 개발한 326개 전자부품 및 재료 가운데에는 수요업체와 협력을 통한 개발이 일체형 Tuner 등 177개 품목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부품 업계 단독개발로서 세라믹레더 필터 등 119개 품목이며 정부지원으로 개발된 부품은 VTR용 드럼 모터의 마그네트 등 30개품목이다.

이 가운데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신개발 전자부품 콘테스트에서 뽑힌 7개 우수개발 전자부품이 같이 전시돼 수요업체로부터 시선이 모아졌다.

한편, 이번 전시회에는 수요업체에서 그동안 수입하고 있는 전자 부품가운데 개발이 시급한 국산화 대상 품목인 VCR용 Capstan Motor 등 218개 품목이 전시돼 전자부품업계로부터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전자부품산업협의회는 전자부품산업의 개발과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금년에 300억원의 개발자금을 지원하고, 부품종합 카다로그를 발간해 국내의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한편, 다양한 규격을 표준화하고 대일본 기술이전 및 수출시장 개척 지원, 부품업계의 기술인력 확보 대책 건의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펴 나가고 있다.

다음은 제1회 우수개발 전자부품 콘테스트 수상자 명단이다.

□ 제1회 우수개발 전자부품 콘테스트 수상업체 명단

수 상 내 용	개발업체	개발제품	대 표 자
통상산업부장관상	삼성전자	IGBT(Insulated Gate Bipolar Transmitter Module)	김광호
전자공업진흥회장상	신흥정밀	CD Auto Changer 테크메니즘	정순상
전자부품종합기술연구소장상	은성산업	Fuse Margin Film for Capacitor	류성근
전자신문사장상	게코전자	열선식 센서	홍기룡
대한전자공학회장상	메디슨	초음파변환기	이민화
전자공업협동조합이사장상	한국광전자연구소	SMD Photo Coupler	중도곽화
	골든콘벡터산업	1.27mm Pitch PCB to PCB Socket Header Connector	윤여순



제20차 전자산업발전 민간 협의회 개최

본회는 지난 9월 12일 무역구락부에서 본회 이상원 상근부회장, 대한전자공학회 이문기 회장, 통상산업부 정태신 전자부품과장, LG전자 김중은 상무 등 19명이 참석, 첨단 전자정보산업 및 가전산업 장기 발전 비전 검토를 위한 제 20차 전자산업발전 민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첨단 전자정보산업 장기발전 비전으로 첨단 산업 6개 분야에 최근 관심이 되고 있는 ISH, 반도체, 게임기 등을 포함시킬을 검토하는 한편, 파급효과가 큰 기술을 중심으로



투자분위기 조성, 인력조달 방안 수립 등 2000

년대에 새롭게 등장할 기초 기술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가전산업 장기 발전 비전으로는 경쟁국과의 차별화 전략 등 목표 설정이 중요한 것으로 논의됐다.

‘미-EU 통상 세미나’ 개최



본회는 지난 9월 26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미국과 EU의 현지 고문 변호사들을 초청 국제 통상세미나를 개최했다.

UR 타결과 WTO체제의 출범으로 선진국 특히 미국과 EU는 개방화 조치와 아울러 자국의 산업보호 성격이 강한 통상관련 각종 법과 제도 등을 재정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년부터 15개국으로 늘어난 EU의 경우 반덤핑 담당 조사관의 대폭 증원과 새로운 수입규제 수단으로 부상되고 있는 New Round인 경쟁라운드제의 제안 등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에는 최근 중국/일본/한국 등에 심대한 영향을 주었던 Super 301조, 반덤핑 관련 반우회(Anti circumvention) 규정 강화, 대선을 앞두고 통상 대상국에 대한 제재 분위기 고조 등으로 주요 수출지역인 미국의 통상

환경은 전례없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통상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통상세미나에서는 현지 고문 변호사인 Michael p.House(미국), Edwin Vermulst (EU)를 초청하여 각 지역 최근 제·개정된 통상 관련 법규의 이해와 개정 GSP 운용현황, Super 301조 운용 사례, 원산지 규정의 관세법, 최근 미국의 한국산 CTV에 대한 우회수출 제소 등을 중심으로 최신 통상정보가 소개됐다.

통상현안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미국과 EU의 통상 전문 변호사들이 동시에 연사로 참가한 이번 세미나는 이미 해외에 진출하였거나 해외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정보산업 기술 혁신 세미나 개최



본회는 지난 9월 29일 한국종합전시장 4층 국제회의실에서 21세기를 향한 전자·정보산업 기술혁신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산업기술개발 촉진 및 기술혁신 분위기 고양을 위하여 제2회 산업기술 주간(95. 9.25~9.29)을 맞아 기술 개발의 중요성

및 인식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와 기술혁신 분위기 고취, 산업기술 개발에 기여한 기업인, 기술자 및 관계자의 개발 의욕을 고취키위해 개최된 것이다.

한편 세미나 발표 내용을 보면 한양대 정제창

교수의 멀티미디어 산업 동향, LG 경제연구원 박팔현 선임연구원이 전자·정보산업의 세계화를 위한 전략적 제휴를 전자부품 종합기술연구소의 백병남 실장이 산·학·연 협동연구촉진방안 등을 각각 발표했다.

진흥회 9월 주요 행사 및 회의

일 자	행사 및 회의명	담당부서
9. 1	FBT인터터 코일 표준화 회의	부 품 과
9. 5	부품공용화 실무추진반 회의	가 전 과
9.12	전자산업 발전 민간 협의회	기 획 과
9.13	CPT 대책회의	통 상 과
9.20	휴대폰 업계 회의	산업전자과
9.22	위성방송수신기 업계 회의	산업전자과
9.23	본회 회장단 간담회	총 무 과
9.25	영국 잉글랜드 투자개발청 본회 내방	국제협력과

일 자	행사 및 회의명	담당부서
9.26	미·EU 통상세미나 개최	통 상 과
9.26	가전제품 재활용 사전 평가 제 실시 현황 조사	통 상 과
9.27	팩시밀리 업계 회의	산업전자과
9.29	CD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회의	가 전 과
9.29	전자정보산업 기술혁신 세미나	기 획 과

용어해설

옵티마이즈

옵티마이즈(optimize)란 최대한으로 활용하다. 최적화하다 등의 뜻을 가진 단어인데 컴퓨터분야 등에서는 「최대의 효율을 얻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한다」는 것을 뜻한다.

옵티마이즈는 최적화하다. 최대한으로 활용하다 뜻 이외에도 「될 있는 대로 안전하게 하다」「최대한으로 이용하다」등의 의미도 갖는다.

옵티마이제이션(최적화)은 목적에 따라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가지로 연구·노력하는 것으로서, 정보처리분야에는 컴파일러에 의해 원시프로그램(source program)으로부터 목적프로그램을 생성시키는 과정에서 목적프로그램의 실행시간을 가급적 단축시키거나, 목적프로그램이 格納될 기억의 라이브러리領域을 최소화하거나 또는 컴파일時間을 단축시키는 것을 말한다.

최대의 효율이 얻어지도록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을 수정 또는 보완, 최적화함에 있어 무엇을 목적하는 효율

로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다르며 최적화의 대상이 되는 것은 여러가지이다. 예를 들면 메모리의 용량이 작은 컴퓨터의 경우엔 메모리의 사용領域(area)을 최소화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고쳐 쓰게 되며, 빠른 속도가 요구되는 프로그램에서는 프로그램의 크기가 다소 크게 되더라도 고속으로 처리되도록 프로그램이 고쳐진다.